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xceptional': Clarksons says sale-and-purchase deals hit all-time high in March

Clarksons에 따르면, 1분기 S&P(Sale and Purchase)시장이 역대 가장 활발했다고 보도됨. 3월에만 1,600만DWT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거래됐으며 4월은 보름 동안 800만DWT 규모의 선박이 거래됐다고 보도됨. 주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 대한 거래 폭발이 있었으며, 탱커의 경우 선대 리뉴얼 수요가 있는 선주들 위주로 거래가 발생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Logs, grain, steel: what happened to the capesizes fixed for unconventional cargoes?

통나무, 곡물, 철강 등 비주류 화물에 대한 운송 수요가 Capesize 벌크선 시장내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됨. 최근 BDI 지수 상승세 원인이 중소형 벌크선 운임 회복 영향도 있으나 2021년 초 Capesize 벌크선에 대한 비주류 화물의 운송수요 반등도 한몫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한국조선해양 탱커 2척은 리바이벌 오더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공시한 수에즈막스탱커 2척은 1년 전 현대삼호중공업이 Sonangol로부터 수주했다가 무위로 끝난 선박 주문을 리바이벌 한 선박으로 알려짐. 2020년 5월 현대삼호중공업은 수에즈막스 탱커 2+2척을 수주한 바 있었으나 Sonangol 이사회측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발주를 승인하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 (선박뉴스)

저속운항, 소나무 10만그루 효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 및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5.4% 줄었다고 밝힘. 공사는 2020년 검증 결과에 따라 7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음달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선박뉴스)

두산중공업 1분기 영업익 558.7% ↑…순이익 흑자 전환

두산중공업이 잇따른 해외 수주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천72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8.7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함. 두산밥캣 주가수익스와프 (PRS) 평가이익 영향으로 당기순이익도 4천594억원 늘어난 970억원을 나타내며 11분기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두산인프라코어, 1분기 영업이익 2,954억원… 전년대비 63% 증가

두산인프라코어는 2021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2,95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3.2%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함. 세계 각국 가들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와 원자재 가격 회복 등에 따른 결과라고 보도됨.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3월 중국과 한국시장에서 창사이래 최대 월 판매고를 올렸다고 보도됨. (조선비즈)